

# “일방적 교육보다 함께 성장하는 게 이상적”

## CULTURE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창작자서 대학 교수로 변신 정성준 작가

전남대 미술학과 정식 임용 막중한 책임감 느껴  
현재 교육 집중·양호열 학예실장도 동강대 안착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분이 강사(외래교수)와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직함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의무감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을 연고로 11년 동안 활동을 펼치며 ‘북경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해 여러 차례 솔드아웃(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던 창작자로서 최근 대학 교수(조교수)로 임용돼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전남 순천 출생 정성준 작가는 11일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가 발병하자 중국 북경에서 잠시 국내로 돌아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업에 전념한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1일 임용됐으며 이어 4일에 정식 임용장을 받고 대학 교수로 안착했다.

정 작가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임용된 것이다. 그는 북경에 머물 무렵, 광주로 돌아갈 경우 후배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생각해 특강이나 강의의 생각해 봤지만 자신이 대학교수가 될 것이라고는 언감생심 생각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북경에서 활동할 당시 작업실 청소를 할때 물

걸레질 하면서 혼자 입으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다”며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나 코로나19로 인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그 이후 강의를 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이 좋게 대학 교수가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북경 작업실에서 홀로 트레이닝을 했던 게 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용으로 특이한 이력을 또 하나 갖게 됐다. 먼저 그는 중국 베이징 소재 중앙미술학원의 100년 넘는 역사에 첫 외국인 수석이라는 기록을 세운 장본인이라는 점과 프랑스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 이어 조선대 출신이 전남대 교수로 임용된 특이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교수 임용 전에는 전남대에서 3년 반 강사로 활동했다. 그는 조선대에서는 강의 경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그가 느껴왔던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교 같다는 생각이었다. 대학 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왔다는 귀범이다.

아울러 그는 교육자와 창작자의 조화보다는 이제 임용된 신참인 만큼 교육에 집중할 때라고 밝힌 뒤 앞으로 데이터도, 노하우도 쌓일 것으로 본다. 반응이다. 이후에는 교육과 창작이 균형을 찾아가길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단어를 내밀었다.

“저는 일방적 교육보다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대 트렌드에 맞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채워주는 스승이 되고 싶어요. 이와 함께 창작자 생활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론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론 공부에 대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왔죠.”

창작에도 이론이 중요하다는 그는 동시대 흐름을 파악해야 오늘날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더라도 이론의 중요성은 늘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시각이다.

미술계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심하다는데 공감한다. 회화에 디지털, 뉴미디어, 다양한 실험 등이 접목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자신이 알지 못하면 강의를 할 수 없는 만큼 창작비중을 줄여가며 이론 공부 역시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울초까지 국제은행인 산업은행과 만나 5년째 콜라보를 진행해온 작가는 ‘트랙’ 연작으로 국내외에 일정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화두로 트랙에 북극곰이 오르는 모습을 통해 갈수록 파괴돼 가는 환경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 작가는 올해 그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미뤄왔던 북경 개인 전시(10회째)를 방학 중인 오는 8월 중 798예술특구 소재 작자화랑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양호열 광주소암미술관 학예실장도 조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동강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다 정식 전임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광주가 지닌 연대와 공존의 가치 ‘성찰’

김성재 개인전 17일부터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이주민·다문화 공동체 담아  
사진·필름 등 50여점 선보



'Mondal Narayan'



'김봉희 사진'

이주민의 서사가 담긴 사진을 통해 광주가 지닌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과 글라스폴리곤에서 열릴 김성재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그것. ‘모든 여정은 의미가 있다. 모든 육신은 영혼이 있다’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4년 간 이주민과 다문화 공동체의 삶을 담은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필름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김성재 작가는 인물과 서사를 함께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통해, 2021년부터 고려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난민, 결혼 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초상 사진을 넘어,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갈등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작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호랑가시 작자서 레지던시에 참여해 이미 인연을 맺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민이 아닌 공존의 시선으로 이주민을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또 이

들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조명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이런 철학은 전시 제목인 ‘모든 여정은 의미가 있다. 모든 육신은 영혼이 있다’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는 이주민의 이동과 정착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여정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존재가 노동력에 국한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야 할 주체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엇보다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만남, 5·18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이 독재와 억압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조명하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김성재 작가는 역사적 기념물과 정치적 요소를 활용한 연출적 작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과거 작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을 직접 제작해 착용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맥락을 풍자했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촬영하는 등 특정 기념물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운주사는 진정국사 천책이 주도” 눈길

‘문화通plus’ 봄호 발간...시리즈 등 내용 다채

(사)광주문화발전소(이사장 지형원)가 발행하는 ‘문화通plus’(봄호, 통권 52호)가 출간됐다.

이번 봄호에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 번만이라도 금남로에 늘어난 문화행렬 보고 싶다’를 시작으로 화순 운주사가 도산국사가 창건한 것이 아니라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결사를 주도한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천책은 과거금제자로 만덕사에 출가했는데 그가 쓴 시문집 호산록(湖山錄)에 운주사 다보탑 준공을 찬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운주사 연구가인 김병태 대인처와 원장이 밝히고 있다.

또 장기시리즈인 ‘전남의 마을 1박 2일’에서는 고려 선종의 어의였던 최사전을 시조로 해 900년 명문가를 잇고 있는 탐진씨족의 집성촌을 찾았다.

임란 당시 수군절도사를 지낸 최원립과 ‘표해록’을 쓴 최부 등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여기다 새롭게 시작한 박물꾼 이야기에서는 ‘옛 바귀 먹은 청동유물’이 국보로 지정된 ‘사연’을 비롯해 광주 최초의 모자점 이야기, 광주 공항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제 공항으로 승격시키자는 노영대 변호사의 칼럼, 63년째 부채만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점성장 김대서 장인, ‘음식으로 읽은 문화’ 방앗민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재미를 더한다.

이외에 남도의 여인에서는 사랑하는 임을 살리고 자신은 거적매기 수의로 묻힌, 유배 선비를 사랑한 흥윤에 이야기, 관광전문가가 쓴 해외 취재 ‘튀르키예를 가다’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ACC재단, 숲속 동물 친구들의 ‘발레 음악회’

‘난생처음 시리즈’ 22~23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ACC 난생처음 시리즈’로 연극 ‘숲속 발레 음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2시에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ACC 난생처음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생애 처음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극장 공연 브랜드다.

이번 공연은 원소 리노와 그의 숲속 친구들이 준비한 발레 음악회로 꾸며진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4중주로 구성된 동물 악단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동물 캐릭터들의 발레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공연 중 퀴즈 형식을 통해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스트레칭과 발레 동작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어린이 관객들은 발레와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숙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지역 명소에서 ‘천체 관측’ 체험해볼까

광주과학관, 29일까지 ‘이동과학관 프로그램’ 마련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이동과학관을 활용한 ‘2025 이동과학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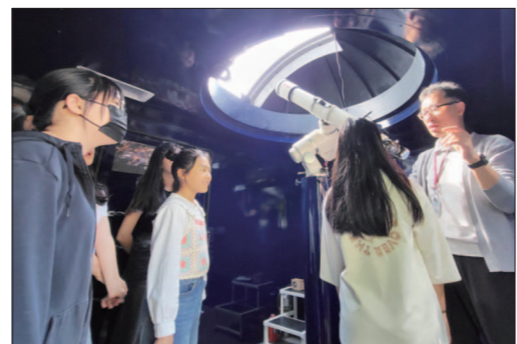
가족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권 지역 명소에서 천체 관측 체험을 제공해 과학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태양과 망원경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 관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직접 관찰하며, 태양 활동과 천체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지난 8일 순천만국가정원을 시작으로, 15일 담양 어린이 프로방스, 22일 고창 고인돌박물관, 29일 순천만국가정원 등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민들이 보다 친숙한 장소에서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공간에서 체험이 이뤄진다. 넓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이뤄지는 천문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더욱 밀접한 학습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재 연구원은 “천체 관측을 통해 이용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천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과학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과학관에서 태양관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참가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 이동과학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ACC 난생처음 시리즈’로 연극 ‘숲속 발레음악회’를 22~23일 어린이문화원에서 선보인다.